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SALT
2009~2013.03.01

세상을 아름답게 할 생각나눔의 일환으로 목포시 상징을 이용한 어린왕자 벽화를 생각나눔합니다.

1. 에세이:

장소는 2009년 목포 KYC 푸른꿈 공부방 자원봉사 벽화를 같이하였던 신향아씨가 추천한 곳입니다.
내용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꿈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기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2. 기대효과:

- 1) 기존 어린왕자 벽화와는 다른 목포시의 특색이 있는 어린왕자 벽화.
- 2) 지역별 · 나라별 어린왕자 벽화 시리즈의 시작을 알림.

3. 공개방법:

- 1) 홈페이지(목포시청-열린시장실-시장에게바란다.)
- 2) SALT 임시카페 <http://cafe.naver.com/dolsori>
- 3) 목포대학교 청년 작가전(2013.03.07~20)

4. 사용조건:

없습니다. 단, 생각의 수용 · 대기 · 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기획 및 진행: SALT 자칭문화기획자 돌소리(정경탁)

'돌소리'는 돌머리(비전문가)에 의한 소리(외침)를 의미합니다. 녹19:40

6. 디자인: 1.조인예 -> 2.윤승환 -> 3.신형만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기획 및 진행: 돌소리(정경탁)
디자인: 1.조인에 -> 2.윤승환 -> 3.신형만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기존	변경	이유
어린왕자	곤룡포입은 어린왕자	왕세자의 복식
비행기(비행사)	방패연	한국의 대표연
장미	백목련	목포시화
행성	유달산, 갯바위	목포시 대표 상징
여우	학	목포시조
새떼	세마리 학	목포시조, 삼학도 전설
바오밥나무	비파	목포시목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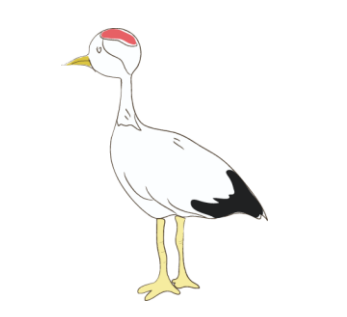
시 화 - 백목련

목포를 상징하는 꽃 - 백목련 (白木蓮)
목련과의 교목으로 그 품격이 고매하고 우아하며 같은 '목'자 돌림의 상통성을 갖는다.
초봄 일찍이 흰 봉우리의 꽃을 앞 먼저 피어 올려서 그의 자태를 자랑하여 '문화 예술의 깊은 뜻과 순진한 목포인'을 상징한다.



시 목 - 비파

목포를 상징하는 나무 - 비파(枇杷)
장미과의 상록수로 목포지역에서 재배되며, 꽃은 추운 겨울에 고통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특이한 생리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목포인의 기질을 상징, 열매는 부귀와 불변을 상징하며 앞줄기는 우아한 품위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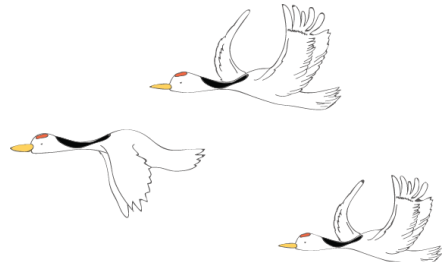


시 조 - 학

목포를 상징하는 새 - 학(鶴)
삼학도 전설에 등장하는 장수(長壽), 복록(福祿)의 길조로 순고(純高)한 신비의 자태같은 품위와 멋과 낭만의 목포 예술인 기질 간직.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유달산](#)
[주요관광지](#)
[관람코스](#)
[유달산](#)
[유달산안내](#)
[입장료](#)
[주차요금](#)
[찾아오실때](#)
[찾아오실때](#)
[찾아오실때](#)
[찾아오실때](#)
[찾아오실때](#)



노성산맥의 큰 골짜기 무안반도 앞단에 이르러 마지막 봉우리를 만 곳, 유달산은 면적 140ha, 높이 228.3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성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이자 다도해로 이어지는 서남단의 땅끝인 산이다. 유달산은 옛부터 영혼이 거처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 이라 불리웠으며 도심 속에 우뚝 솟아 포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굽어보며 이곳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찬을 일깨우고 있다.

호반의 개굴' 이라고도 하는 유림산에는 대나무, 달성각, 유전각 등등의 5개의 정자가 지어져 있으며, 산 아래에는 가수 이만수 이 부른 '목포의 눈물' 기념비 등이 있다. 1982년 목포문예추진위원회의 범시민적인 유림산 공원화 사업으로 조각작품 4점이 전시되고 조각경관 단농원 등이 조성되어 볼거리가 많으며 산 주변에 개동된 2.7km의 유림산 일주도로를 타고 달리며 목포시와 다도해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영춘이 심장을 받는다 하여 이를 영춘재(永春臺) 228m의 일동바위(일동봉바위)와 심장 받음 영춘이 이동한다 하여 이를 지어진 이동바위(이동봉바위)로 나뉘어진 유달산은 갖가지 기암괴석과 병풍처럼 솟아오른 기암절벽이 장관하며 그 옛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병풍을 펼쳤던 영수대와 달성사, 반야사 등의 전통사찰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진왜란 때 이영으로 바위를 달아 아군의 군량미처럼 가장해 왜군의 전의를 상실했다는 이순신 장군의 설화가 전해오는 노조영을 비롯하여 유선각, 오펜대 등 역사상 의미 있는 곳이 많으며, 특히 유달산에는 이곳에서 멸종되면 지구상에서 영히 소멸되는 왕자키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도해의 경관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오가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모습이 좋게도 아름다운 한복의 아름다움을 연출시키는 폭포의 경관 유달산, 그 위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일몰이나 폭포하의 야경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상세정보

- ▶ 유람선 입장료: 무료
- ▶ 주차 장: 2,645m(승용차 2,000대 + 승합차)
- ▶ 주차요금
 - 경승선차로(30분단위 500원, 정액권 1,500원)
 - 승용, 승합차(30분단위 1,000원, 정액권 3,000원)
 - 대형버스 4종 이상 화물차(30분단위 1,000원, 정액권 4,000원)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차량 요금에 50% 할인
- ▶ 주요시설: 파도라, 녹담, 대중음식점, 기념품점, 슈퍼마켓
- ▶ 입장시간: 제한 없음
- ▶ 등산코스
 1. 유람공원 입구-달성각-유간각-미암바위-칠뿔바위(2km, 40분 소요)
 2. 달성공원 입구-소요정-미암바위(1km, 20분 소요)

 교통정보

- ▶ **목표곡** : 도보로 20분거리(유일산 입구까지)
- ▶ **버스선곡** : 시내버스(1,101,108,105,2번) 이용하여 목표곡 하차
- ▶ **도료안내**
 1. 목표곡 → 오거리 → 유달산 입구
 2. 호국고속도로 광산IC → 1번국도로 → 송정 → 나주 → 1번국도로 → 무안 → 목표시내 → 종달리 → 무안들 → 유달산 진입로
 3. 서해안고속도로 → 목표 도락(목합) → 이점동(유달산)

[illegible]

- [illegible]



전설

여기서 있는 한 쌍의 바위에는 몇 가지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아주 먼 옛날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소금을 팔아 살아가는 윤이가 있었는데, 살림살이를 다 팔아도 아버지를 위해서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착한 청년이었다.

아버지와 딸을 치료하기 위해 부자간호 미술소비를 들어가게 된 딸은 일찍이 어머니가 품을 낳고 한 달 만에 죽어 버린 딸의 배아를 품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였다. 결혼이든 딸이 돌아오든 반갑고 싶은 한 달 여섯살을 한탄하며, 저승에서라도 하릴 수 있도록 양치지만 곳에 모시려다 그만 심수로 관을 바다 속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불효를 통회하며 하늘을 바라 불었다든 것을 쓰고 지리를 그려서 목숨에, 훗날 이곳에 두개의 바위가 솟아올라 사람들이 큰 바위를 아버지바위라 하고 큰 바위를 아들바위라고 불렀다.

또 한가지는 부처님과 이러한 관계를 갖고 세상의 미치를 깨닫는 성자(聖者) 이 영산강을 건너 이곳을 자못 몹쓸 곳이라 여기고
이런 생각을 놓고 간 것이 바닷가 뒤에 이를 중바위(중년바위)라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2008

- * 경기 :**
- 목포역에서 남해고속도로로 → 목포제일중앙교 앞 → 갯바위 문화지구내
 - 시외버스터미널 → 목포과학대천 → 제일중앙교앞 → 갯바위 문화지구내
- * 시내버스 :**
- 목포역에서 15분 승차
 - 목포역에서 1번 승차 → 목포MBC 앞에서 7번으로 갈아탑
 -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6번, 14번 승차 → 율하동 율호리파로 앞에서 7번으로 갈아탑
- * 택시 :**
-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15분
 - 목포역에서 택시로 15분


[주요관람지](#) > [관람영소](#) > [삼학도](#) > [삼학도전설](#)

[삼학도전설](#)
[삼학도근린공원](#)
[이난영공원](#)
[목포요트미러나](#)

[관객소](#)
[목차보기](#)



세 마리의 학, 섬이 되다....
세 마리의 학이 고이 잠든 푸른 바다의 속삭임.

● 전설의 삼학도야!

꽃발 뚱뚱한 얼굴에 한 손의 장수가 무릎을 꿇아하고 있었는데, 그는 능히 한가게 반한 마을의 세 처녀가 수시로 다닐 때마다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젊은 자를 세 처녀를 불러, 나 이름과 마을을 사탕이나, 공짜에 사탕으로 되니 공짜가 못된 땀까지 이 공짜 땀이 다른 사람의 거다라고 하고는 말했다. 또 말대로까지 거다하면 세 처녀는 무기를 거다하니 그리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전혀하지가 하였다. 세 처녀 각각은 한평생에 유달스런 주위를 돌며 주유할 수 없었다. 그러던 한타고난다. 그 사실을 모르는 무사는 세마리 학을 함께 팔지원을 덩어 쓰었건데오, 화살들이 명중하여 학들은 모두 유달스런 알바데에 떨어지 죽었으니. 그 후 한이 떨어진 자는 세 개의 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심을 세 사람의 심이만 붓의 '삼학두' 바쁘게 돌리는 이야기하였다.

◎ 역사 속에서 삼학도야!

1872년 '우안목포진'에 표시된 삼학사가 처음으로 지도에 그려졌습니다. 이유는 군사요충지 목포진은 세종 1439년 설치되었고, 성이 완성된 것은 1502년, 목포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감이 필요했습니다. 삼학도는 물나루를 제공했던 중요한 시지였어요. 군부대의 시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일반인들은 접근금지 구역이었지요.

● 돌아온 삼학도야!

삼학파가 1895년 일본인에 의해 해방으로 이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항) 대매할 수 없는 국지적인데도 일본이, 일본인 삼국협약은 옛 포목店內 1집을 두어 이관해서 삼학파를 해방시켰다. 개항 2년전 (개항) 1895년 1월, 개항 후 발파처 직할하고 수까지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1916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삼학파와 고하도는 일본의 땅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삼학파 토지개발사건'으로 일본인이, 우리 토지를 침탈한 대표적입니다. 삼학파가 훼손되기 시작한 때는 5-60대였고 일제강점기 때는 착취장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두말하고도 무리나 커우되었습니다.

🔍 다시보자 삼학도야!

1956년 목포항을 부산 다음가 항구로 키운다고 1961년 삼학도 옹호회 갖바위를 잇는 방조제를 쌓았답니다. 1956년 때, 중, 삼학도를 연결해 지금은 매미뚝이 육지가 되었으나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 사람들의 꿈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망망대해로 남몰래 떠나보낸 아득들의 외로움이 녹아있고, 고깃배를 기다리는 상인들의 희망이 담겨있으며 이슬을 하직하고 저승으로 건너가는 망자들의 한이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친해지는 시기는 짧으나 정서적 상징성이 매우 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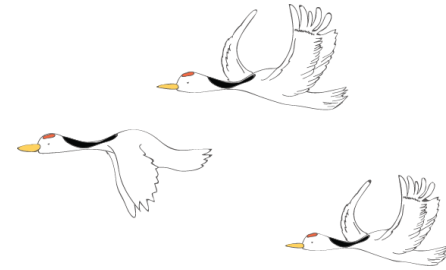
교묘한 복귀 전략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하면 손해가 더욱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전염 확률이 아가가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아중심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때 **타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때 **인간관계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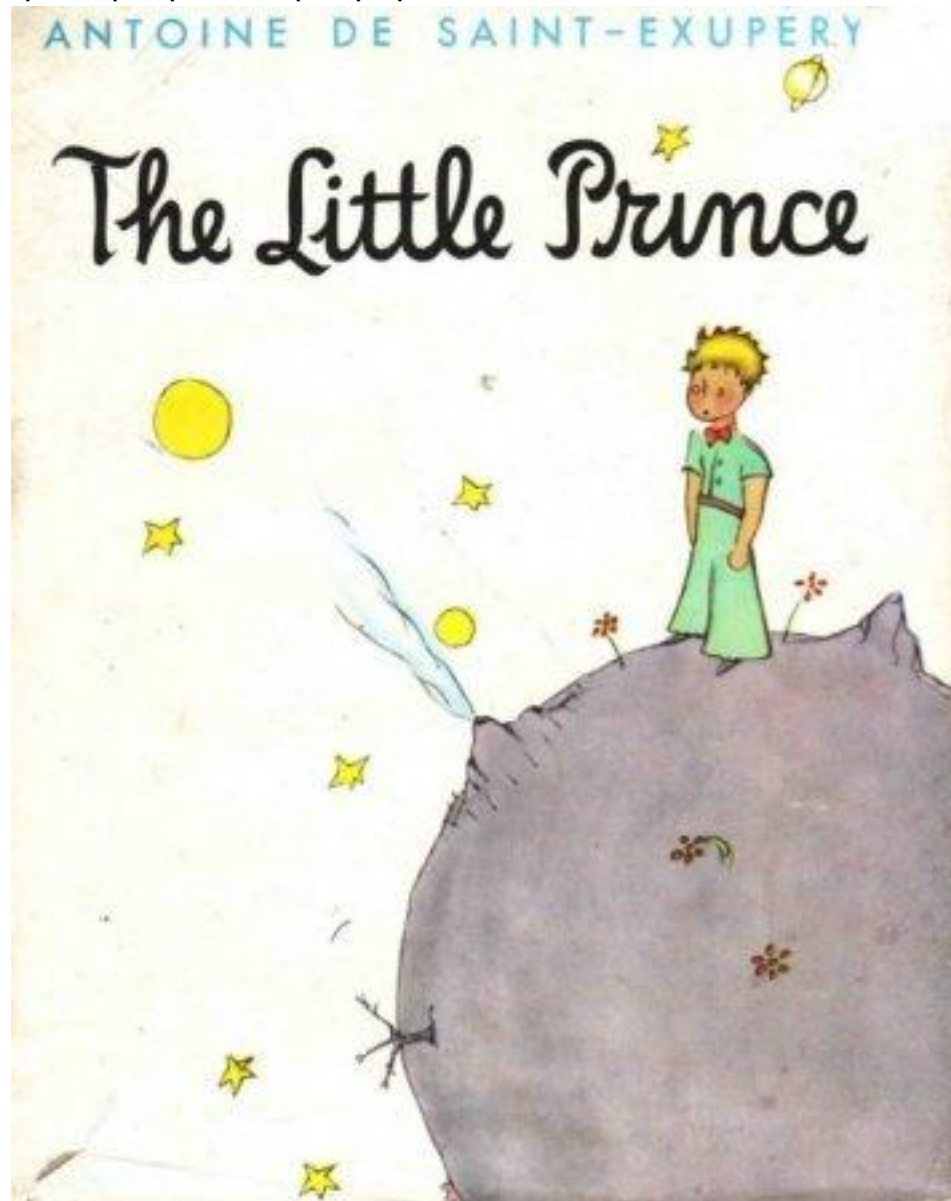


삼학도 변천사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



SALT 생각나눔 17
-목포시 어린왕자 벽화-제안 장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본 디자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12년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에 의해 마무리되었습니다.

